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19, No. 111, pp.259-290
<https://doi.org/10.29212/mh.2019..111.7>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로마-갈리아 전쟁에서 로마군 공성전의 전술사적 의미*

배은숙**

1. 머리말
2. 아바리쿰과 옥셀로두눔 공격전의 양상
3. 알레시아 포위망의 의미
4. 맺음말

1. 머리말

고대에 군사적 거점이나 행정적 거주지로 선호하는 축성 장소는 높은 곳이였다. 베게티우스(Publius Flavius Vegetius)에 따르면, 높은 지역은 배수와 통풍이 잘되고, 적을 관찰하기 쉽고, 적의 창이나 화살의 공격을 어렵게 하며, 내리막으로 치달으면

* 이 논문은 2017년 계명대학교 연구기금으로 이루어졌음.

** 계명대학교 타볼라라사 칼리지 조교수

공격력을 배가시킬 수 있다.¹⁾ 한마디로 높은 곳의 성곽이 방어와 공격에 용이하다는 것이다. 높은 곳에 위치하거나 성벽으로 둘러싸인 적의 영토를 점령하기 위해서는 공성전을 치러야 한다. 공성을 위해서는 포위망을 구축하거나 땅굴을 파거나 적의 성벽으로 오를 수 있는 장비나 성벽을 파괴하는 장비를 설치해야 한다.²⁾ 따라서 축성이나 수성, 공성은 건설 공사와 공성 장비를 동원해야 하므로 한 개인의 군사적 역량이 아닌 전체 군대, 전 국가의 역량을 투입해야 하는 행위이다.

로마가 적국의 성곽을 공략하는 적극적인 공성전을 편 초기의 사례는 기원전 436년 피데나이(Fidenae) 시를 장악하기 위해 땅굴(*cuniculus*)을 판 것, 기원전 417년 라비키(Labici)와 406년 안크수르(Anxur)에 사다리를 타고 올라간 것을 들 수 있다. 기원전 399년 베이이(Veii) 성벽 밑으로 이어지는 땅굴을 파서 도시를 장악한 것 또한 동일한 사례이다.³⁾ 기원전 3-2세기 로마-카르타고 전쟁을 치루면서 로마군은 장기간의 공성전을 경험하였다. 기원전 213-211년의 시라쿠사이(Syracusae) 전투, 기원전 210년의 카르타게나(Cartagena) 전투, 기원전 191년의 헤라클레아(Heraclea) 전투, 기원전 133년의 누만티아(Numantia) 전투는 ‘모든 종류의 비틀림 노포(*genus omne tormentorum*)’를 사용하여 적국에 대항한 대표적인 사례이다.⁴⁾

공성전을 통해 로마의 영토를 넓히게 된 계기 중의 하나는 카이사르(Julius Caesar)의 로마-갈리아 전쟁(기원전 58-51년)이었다. 로마-갈리아 전쟁은 스위스 지역에 거주하던 헬베티족(Helvetii)이 갈리아 지역을 가로질러 더 비옥한 지역으로 대거

1) Vegetius, *Epitoma Rei Militaris* 3.8.

2) Josephus, *Bellum Judaicum*, 3.7.1-36.

3) Livius, *Ab Urbe Condita* 4.22, 4.47, 4.59, 5.5.

4) Livius, *Ab Urbe Condita* 24.33, 25.23, 26.42, 36.22; Appianus, *Hispanica* 90-98.

이주하려는 움직임을 저지하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카이사르는 게르만족, 갈리아 북부에 있던 벨가이족(Belgae)에 대항하였다. 기원전 57년 그는 벨가이족과 인근 네르비이족(Nervii)과의 전투에서 승리하여 복종을 약속받았다. 이와 동시에 카이사르 군대는 브리타니아를 침입했다. 이 일은 서부 갈리아 지역과 브리타니아 사이의 무역을 주업으로 하던 베네티족(Veneti)을 자극했다. 기원전 56년 여름 대서양 연안에서 벌어진 베네티족과의 해전은 카이사르의 승리로 돌아갔다. 기원전 55-54년에는 브리타니아에 재침입하여 카시벨라우누스(Cassivellaunus)를 굴복시켰다. 기원전 54-53년 동안 네르비이족, 트레베리족(Treveri), 에부로네스족(Eburones)과 연이어 전투했다.

기원전 52년 아르베르니족(Arverni)의 지도자인 베르킨게토릭스(Vercingetorix)를 중심으로 하여 중부 갈리아 지역에서 반란이 일어났다. 그는 아바리쿰(Avaricum) 전투에서는 패배하였지만 게르고비아(Gergovia) 전투에서 카이사르군 백부장 46명을 포함하여 700명을 전사시키는 승리를 거두었다. 이어서 베르킨게토릭스는 요새화된 알레시아(Alesia)로 들어갔다. 카이사르는 알레시아를 포위했고, 굶주림에 지친 주민과 병사들은 항복할 수밖에 없었다. 생포된 베르킨게토릭스는 카이사르의 개선식 때 전리품으로 전시된 후 처형되었다. 이로써 최종 정복된 갈리아 지역은 로마에 병력을 공급하는 주요한 원천이 되었다.

기원전 1세기 후반 카이사르군이 치룬 공성전은 총 26번이었고,⁵⁾ 그 중 카이사르가 직접 지휘한 공성전은 총 17번이었다. 그 중 갈리아에서 치룬 공성전은 기원전 57년의 노비오두눔

5) 26번의 공성전은 Noviodunum, Veneti, Atuatuaci, Alexandrion, Sotiates, Zenodotium, Vellaunodunum, Cenabum, Avaricum, Gergovia, Alesia, Uxellodunum, Pindenissus, Corfinium, Brundisium, Massillia, Utica, Salonae, Oricum, Dyrrachium, Gomphi, Alexandria, 기원전 47년과 45년의 Ulia, Thapsus, Ategua 등이다(Caesar, *Bellum Gallicum: Bellum Civile* 1-8; Appianus, *Bellum Civile* 2; Plutarchos, *Caesar* 1-39).

(Noviodunum) 전투와 아투아투키족(Atuatuci) 전투, 기원전 56년의 베네티족 전투와 소티아테스(Sotiates) 전투, 기원전 52년의 벨라우노두눔(Vellaunodunum) 전투, 케나뭇(Cenabum) 전투, 아바리콧 전투, 게르고비아 전투, 알레시아 전투, 기원전 51년의 옥셀로두눔(Uxellodunum) 전투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전장은 험난한 지형에 위치해 있어서 공성전이 쉽지 않았다.⁶⁾

카이사르가 갈리아에서 치룬 공성전의 전술사적 의미에 대한 학자들의 평가는 엇갈린다. 하나는 카이사르의 로마-갈리아 전쟁을 공성 기술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킨 계기로 보는 견해가 있다. 포위망 구축은 헬레니즘 시기부터 있어 왔지만 이것이 제정기 동안 로마 공성전의 특징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은 카이사르 덕택이라는 것이다. 공성전의 대가인 카이사르는 포위망을 구축하는 동시에 기병을 활용하여 원군의 가능성을 차단함으로써 포위된 적군을 항복하게 만드는 뛰어난 전술을 구사하였다는 것이다. 특히 노소프(K. Nossov)는 로마의 공성전은 카이사르가 완성하였다고 했다. 카이사르는 포위를 정규 부대원으로 편성한 최초의 군사령관이었고, 그의 로마-갈리아 전쟁은 이 시기 로마 공성 전술의 다양성과 무기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었다.⁷⁾

카이사르의 공성전 능력에 대해 회의적인 견해를 가진 학자도 있다. 캠벨(D. B. Campbell)에 따르면, 군단병들이 매일 행군 후 주둔지를 건설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카이사르 시대에는

6) Caesar, *Bellum Gallicum* 7.17, 7.36, 7.69.

7) K. Nossov, *Ancient and medieval siege weapons: a fully illustrated guide to siege weapons and tactics*, Connecticut: The Lyons Press, 2005, 49-50; P. Roth, *The Logistics of the Roman Army at War*, New York: Brill Academic, 2012, 316; J. Peddie, *The Roman war machine*, Washington: Sutton, 2004, 156-184; L. Keppie, *The Making of the Roman Army from Republic to Empire*, Oklahoma: University of Oklahoma Press, 1998, 80-96; G. Webster, *The Roman Imperial Army of the First and Second Centuries A.D.*, Oklahoma: University of Oklahoma Press, 1998, 240-254.

이미 오래전부터 야전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 기존의 전술을 사용한 카이사르는 공성 장비를 새롭게 만들지도, 전술을 새롭게 창안해내지도 않았다. 가령 로마 포위전의 전형적인 사례인 알레시아 공성전도 실상은 스키피오(Scipio Aemilianus Africanus)의 누만티아 전투에서 채택한 전술이라는 것이다.⁸⁾

로마-갈리아 전쟁에서 치른 공성전의 전술사적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로마-갈리아 전쟁만이 아니라 이제까지 로마가 싸웠던 공성전의 사례들을 분석, 비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전쟁에서 전술적 결정을 하는 것은 군사령관이고, 군사령관은 자신이나 선임자들의 전쟁 경험에서 배우기 때문이다. 과거 전투에서 사용했던 전술과 기술이 일종의 안내서 역할을 한다는 뜻이다.⁹⁾ 따라서 기존의 공성전과 로마-갈리아 전쟁의 공성전 사이의 차이점과 유사점을 파악해야 로마-갈리아 전쟁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로마-갈리아 전쟁이 지속되었던 9년이라는 시간도 고려해야 하는 요소라고 생각한다. 로마-갈리아 전쟁이 지속되는 동안 카이사르나 갈리아가 동일한 기술과 동일한 유형의 공성전을 치렀는가 하는 문제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전투를 치루는 종족이나 지도자의 경험이 축적되는 상황에서 갈리아의 전술을 통합적으로 판단하거나 이에 대항하는 카이사르의 전술을 통칭하여 판단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생기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성전을 치루면서 양군의 전술적 변화는 없었는지를 파악한다면 로마의 공성전에서 로마-갈리아 전쟁이 차지하는 의미가 드러날 것이다.

8) T. R. Holmes, *Caesar's Conquest of Gaul*, Oxford: Clarendon Press, 1911, 70-85; D. B. Campbell, *Siege Warfare in the Roman World: 146 BC-AD 378*, Oxford: Osprey Publishing, 2005, 19-26; A. Goldsworthy, *Roman Warfare*, London: Cassell, 2000, 86-87, 100-104.

9) D. B. Campbell, "Teach Yourself How to Be a General," *Journal of Roman Studies* 77, 1987, 13-29.

이에 본고에서는 로마-갈리아 전쟁에서 카이사르가 치룬 공성전을 과거의 사례와 비교하고, 시간적 흐름에 따른 전술적 변화를 추적할 것이다. 다만 본고는 공성전 중 아바리쿰 전투와 옥셀로두눔 전투, 알레시아 전투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전쟁 막바지에 치러진 이 전투들이 카이사르가 수년에 걸쳐 갈리아에서 치룬 공성 전술을 집약한 것이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2. 아바리쿰과 옥셀로두눔 공격전의 양상

높은 곳이나 진입이 어려운 지형에 위치한 적의 성곽을 장악하기 위한 공성전에는 직접 공격하는 전술이 있다. 이것은 각종 공성기계들(*machinae*)을 투입하여 적의 성곽을 파괴하거나 성벽을 넘어 장악하는 전술이다. 공성기계에 대해 리비우스(Titus Livius)나 암미아누스(Ammianus Marcellinus)는 “비틀림 노포와 기계(*tormenta machinaeque*)”, 혹은 “커다란 파성퇴(*arietes, krioī*)를 제외하고 모든 공성기계들이 파괴되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비틀림 노포란 양팔이 비트는 원리를 이용하여 화살이나 돌을 발사함으로써 붙여진 이름이다.¹⁰⁾ 또 카이사르는 공성탑(*turris*)을 거대한 공성기계로 보았다. 이를 종합하면 공성기계란 포, 파성퇴, 공성탑을 지칭한다고 볼 수 있다.¹¹⁾ 이러한 공성기계를 동원한 직접 공격 전술은 살상용, 파괴

10) P. Oleson, ed., *The Oxford handbook of engineering and technology in the classical worl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0, 699-701; D. B. Campbell, *Greek and Roman Artillery 399 BC-AD 363*, Oxford: Osprey Publishing, 2003, 42.

11) Zosimus, *Historia Nova* 1.70, 2.23-26, 3.17-18; Ammianus, *Res Gestae* 20.11, 24.2; Livius, *Ab Urbe Condita* 6.9.2; Caesar, *Bellum Gallicum* 2.12.

용 기계들을 활용하는 만큼 단기간에 가시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적의 성 안으로 진입하기 위해 성벽을 오르거나 성문을 파괴하는 과정에서 아군에게도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선택해야 하는 전술이다.

로마-갈리아 전쟁에서 카이사르가 직접 공격 전술을 택한 대표적인 사례는 아바리쿰 전투와 옥셀로두눔 전투이다. 아바리쿰은 한쪽 면을 제외하고 강과 소택지로 둘러싸여 있는 험난한 곳이어서 포위전을 할 수 없었고, 옥셀로두눔에서는 적의 수원을 안전하게 차단하기 위한 공격전이었다. 카이사르는 아바리쿰에서 아군 보호용 이동로(*vineae*)와 공성탑을 배치하여 아군의 병사들이 작업이나 접근을 용이하게 하였다. 보호용 이동로는 가죽이나 젖은 천으로 덮여 있는 이동로로서 병사들이 적의 화살이나 돌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를 받으면서 흙을 나르는 공사를 할 수 있는 장치이다. 공성탑은 “작업한 것과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¹²⁾ 이것은 전나무나 소나무 같은 부드러운 목재로 내부에 사다리와 도개교를 설치하고, 외부는 점토나 가죽으로 덮여 화재에 대비하는 장치였다. 아바리쿰에서 로마군은 너비 330페스(*pes* 97.68m), 높이 80페스(23.68m)의 공성로(*agger*)를 25일 만에 건설하여 적의 성벽 높이만큼 닿게 하였다.

아바리쿰의 공성로가 완성되자 로마군은 화살을 발사하는 포(*scorpio*)를 장착하였고, 이 포에서 발사한 화살들이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갈리아 병사들을 쓰러뜨렸다. 비트루비우스(Vitruvius)는 스키프피오를 화살을 쏘는 작은 노포라고 하였고, 트라야누스 기둥에 묘사된 것은 비트는 두 팔을 가진 것이었다. 이는 두 팔을 가지고 있지만 발리스타(*ballista*)보다는 작은 크기라는 의미이다.¹³⁾ 암미아누스가 오나거(*onager*)를 스키프피오라고 불렀는

12) Sallustius, *Bellum Jugurthinum* 75-76; M. Joseph, “Roman Siege Machinery and the Siege of Masada”, 2012 AHS Capstone Projects, 2012, 2-6.

데, 이는 투석하는 뼈대가 전갈의 꼬리를 닮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이 이름은 스키프리오가 비트는 뼈대가 기존의 두 개에서 하나로 줄어들어 공화정 후기나 제정 초기의 것보다 더 작아졌음을 추정케 한다.¹⁴⁾ 옥셀로두눔에서 로마군이 60페스(17.76m) 높이의 공성로를 건설하고, 그 위에 공성탑과 ‘비틀림 노포(*tormentis*)’를 설치하여 화살을 쏘아대자 도시의 주민들은 물을 길어갈 수 없었다.¹⁵⁾

아바리쿰과 옥셀로두눔에서 카이사르는 보호용 이동로, 공성탑, 공성로, 포 등은 사용하였다. 로마가 이들 장비들을 사용한 과정을 살펴보자. 로마는 기원전 4세기 베이이 점령과 사트리쿰(Satricum) 전투에서 포위전부터 시작하였다. 베이이에서는 땅굴을 통해, 사트리쿰에서는 사다리를 활용하여 점령하였다. 보호용 이동로를 통해 공성로를 건설하고 작은 공성탑을 배치한 것은 기원전 335년 칼레스(Cales) 전투에서였다. 기원전 293년 아퀼로니아(Aquilonia) 전투에서 처음으로 귀갑대형(*testudines*)을 사용하면서 적의 성곽에 더 가까이 접근할 수 있었고, 로마-카르타고 전쟁을 치루면서 장기간의 공성전을 경험하게 되었다. 또 로마군은 기원전 3세기 시칠리아에서 전쟁하면서 파성퇴와 포를 알게 되었다.¹⁶⁾ 기원전 3세기부터 로마-갈리아 전쟁기까지

13) Vitruvius, *De Architectura* 10.10; Ammianus, *Res Gestae* 23-24.

14) Heron of Alexandria, *Belopoeica* 7-8; Ammianus, *Res Gestae* 23.4.4-5; W. Gurstelle, *The Art of the Catapult: Build Greek Ballistae, Roman Onagers, English Trebuchets, and More Ancient Artillery*, Chicago: Chicago Review Press, 2004, 19-21; J. Forge, *Designed to Kill: The Case Against Weapons Research*, Switzerland: Springer Nature, 2012, 55-56; V. Tsamakda, *A Companion to Byzantine Illustrated Manuscripts*, Netherlands: Brill Academic Pub., 2017, 109-110.

15) Caesar, *Bellum Gallicum* 7.17-29; Hirtius, *Bellum Gallicum* 8.41.

16) Livius, *Ab Urbe Condita* 6.8, 8.16; Polybius, *Historiae* 1.17-24, 1.42; Diodoros Siculus, *Bibliotheca Historica* 23-24; K. Nossow, *Ancient and medieval siege weapons*, 44-45.

로마군이 공성전에서 사용한 공성기계들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기원전 3-1세기 공성전에서 사용된 공성 장비

| 시기 | 전투 명 | 사료 | 공성 장비 |
|--------------|-------------------|---|-------------------------|
| 기원전 254년 | 파노르무스 (Panormus) | Polybius, <i>Historiae</i> 1.39; Zonaras, <i>Epitome Historiarum</i> 8.14 | 파성퇴(krios) |
| 기원전 250-241년 | 릴리바이움 (Lilybaeum) | Polybius, <i>Historiae</i> 1.41-55; Zonaras, <i>Epitome Historiarum</i> 8.15 | 공성탑, 파성퇴 |
| 기원전 214년 | 카실리눔(Casilinum) | Livius, <i>Ab Urbe Condita</i> 28.19 | 보호용 이동로, 기계들 (machinae) |
| 기원전 208년 | 로크리(Locri) | Livius, <i>Ab Urbe Condita</i> 27-28 | 포, 기계들 |
| 기원전 204-203년 | 우티카(Utica) | Appianus, <i>Bellum Punicum</i> 16.30; Livius, <i>Ab Urbe Condita</i> 29-35 | 포, 기계들, 파성퇴 |
| 기원전 198년 | 아트락스(Atrax) | Livius, <i>Ab Urbe Condita</i> 32.17-18 | 파성퇴, 공성탑 |
| 기원전 197년 | 레우카스(Leucas) | Livius, <i>Ab Urbe Condita</i> 33.17 | 보호용 이동로, 공성탑, 파성퇴, 포 |
| 기원전 195년 | 기테움(Gytheum) | Livius, <i>Ab Urbe Condita</i> 34.29 | 보호용 이동로, 파성퇴 |
| 기원전 191년 | 헤라클레아 (Heraclea) | Livius, <i>Ab Urbe Condita</i> 36.22-24 | 보호용 이동로, 공성탑, 파성퇴 |
| 기원전 190년 | 암피사(Amphissa) | Livius, <i>Ab Urbe Condita</i> 37.5-7 | 파성퇴 |
| 기원전 189년 | 암브라키아 (Ambracia) | Livius, <i>Ab Urbe Condita</i> 38.4-39.4; Polybius, <i>Historiae</i> 21.27-28 | 보호용 이동로, 파성퇴, 기계들 |
| 기원전 156-155년 | 델미니움 (Delminium) | Florus, 2.25; Zonaras, <i>Epitome Historiarum</i> 9.25 | 포 |
| 기원전 149-146년 | 카르타고 (Carthage) | Appianus, <i>Bellum Punicum</i> 80-127; Zonaras, <i>Epitome Historiarum</i> 9.26-30 | 파성퇴, 기계들 |

| | | | |
|------------|---------------------------|--|------------------------|
| 기원전 133년 | 누만티아 (Numantia) | Appianus, <i>Hispanica</i> 90-98; Frontinus <i>Strategemata</i> 2.8, 4.1, 7.27 | 포 |
| 기원전 108년 | 탈라(Thala) | Sallustius, <i>Bellum Jugurthinum</i> 75-76 | 보호용 이동로, 공성탑, 파성퇴 |
| 기원전 87-86년 | 피라이우스(Piraeus) | Appianus, <i>Bellum Mithridaticum</i> 30-41; Plutarchos, <i>Sulla</i> 12-14 | 보호용 이동로, 파성퇴, 포 |
| 기원전 72년 | 테미스키라 (Themyscira) | Appianus, <i>Bellum Mithridaticum</i> 78 | 공성탑 |
| 기원전 69년 | 티그라노케르타 (Tigranocerta) | Appianus, <i>Bellum Mithridaticum</i> 84-86; Plutarchos, <i>Lucullus</i> 26-29 | 기계들(<i>mechanai</i>) |
| 기원전 63년 | 예루살렘(Jerusalem) | Josephus, <i>Antiquitates Judaicae</i> 14; <i>Bellum Judaicum</i> 1.141-154 | 공성탑, 포, 파성퇴 |
| 기원전 57년 | 노비오두눔 (Noviodunum) | Caesar, <i>Bellum Gallicum</i> 2 | 보호용 이동로, 공성탑 |
| 기원전 57년 | 아투아투키 | Caesar, <i>Bellum Gallicum</i> 2.30-33 | 보호용 이동로, 공성탑, 파성퇴 |
| 기원전 56년 | 소티아테스 | Caesar, <i>Bellum Gallicum</i> 3.21-22 | 보호용 이동로, 공성탑 |
| 기원전 52년 | 아마리쿰 | Caesar, <i>Bellum Gallicum</i> 7.17-32 | 보호용 이동로, 공성탑, 포 |
| 기원전 51년 | 옥셀로두눔 | Hirtius, <i>Bellum Gallicum</i> 8.33-44 | 보호용 이동로, 공성탑, 포 |

<표 1>에서 ‘기계들’이라는 단어는 사료에서 장비의 구체적인 종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단순히 기계들이라고만 기록되어 있어서 쓴 표현이다. 기원전 3세기부터 로마군이 사용한 공성기계들은 보호용 이동로, 공성탑, 파성퇴, 포가 대표적이었다. 카이사르가 로마-갈리아 전쟁에서 쓴 장비들과 동일하였다. 이는 카이사르가 공성 장비의 종류에서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온 것은 아니었음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카이사르가 전개한 공성과정은 일반적인 전술이었던가 하는 문제가 남는다. 기원전 3세기부터 치른 공성전에 대한 사가들의 기록을 볼 때 카실리눔 전투, 로크리 전투, 카르타고 전투, 누만티아 전투의 경우 보호용 이동로나 포를 동원했다는 정도만 간단히 언급되어 있어 구체적인 전투 상황을 알 수 없다. 우티카 전투, 아트락스 전투의 경우는 공성탑에서 커다란 돌을 발사하였거나 공성탑 바퀴 하나가 꼼짝 못하게 되었다는 단편적인 상황만 기록되어 있다. 파노르무스 전투, 릴리바이움 전투, 아트락스 전투, 암피사 전투, 레우카스 전투, 탈라 전투의 경우는 공성탑과 파성퇴를 사용하였다고 기록하지만 공성탑을 세우고, 파성퇴로 적의 망루나 성문을 강타했다는 식의 단순한 상황만 언급하고 있다.¹⁷⁾

기록에서 공성전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몇 개의 전투가 있다. 헤라클레아 전투에서 로마군은 며칠에 걸쳐 공성기계들을 장착하였다. 공성로와 보호용 이동로로 공격하였고, 파성퇴로 성문을 강타하였다. 주민들은 공성로를 불태우려고 불을 붙인 나뭇가지를 모아 던졌다. 이러한 공성전이 24일 동안 지속되었다고 한다. 암브라키아 전투에서 공성기계들을 옮긴 후 파성퇴로 적의 성벽을 강타하는 동시에 긴 갈고리로 적의 흉벽을 끌어내리기 시작하였다. 적군이 불화살과 불을 붙인 나뭇가지를 던지고, 파괴된 성벽을 재빨리 보수하자 로마군은 보호용 이동로의 엄호를 받으면서 땅굴을 파기 시작했다. 피라이우스 전투에서 로마군은 우선 성벽에 사다리(*scala*)를 대고 올라가려 하였으나 실패했다. 테베(Thebes)가 포(*katapultai*)를 제공해 주었고, 이 포가 적군의 공성탑을 파괴하였다. 로마군은 공성로를 건설하였으나 적군의 공격으로 일부 파괴되자 재건설하였다. 로마

17) Livius, *Ab Urbe Condita* 27-35, 37-39; Appianus, *Bellum Punicum* 16.30; Polybius, *Historiae* 1.39; Appianus, *Bellum Mithridaticum* 30-41, 78.

군이 파성되도록 적의 허약한 부분을 공격하면 적이 수리하고, 그러면 로마가 재공격하는 과정이 반복되었다. 공성탑과 공성기계를 장착하고 성을 파괴시키려는 시도는 예루살렘 전투에서도 마찬가지였다.¹⁸⁾

기존의 공성전의 과정을 보면 보호용 이동로로 병사들이 건축 자재와 흙을 옮기고, 공성로가 건설되면 공성탑, 파성퇴, 포를 장착하여 적의 성벽이나 성문에 오르거나 파괴하는 방식이었다.¹⁹⁾ 아바리쿰과 옥셀로두눔의 사례에서 볼 때 카이사르 또한 보호용 이동로로 병사들을 이동, 공성로를 건설하게 하였고, 이후 공성탑과 포를 장착, 활용하였다. 이 두 전투에서는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카이사르는 파성퇴도 사용할 줄 알았다. 기원전 57년 그가 아투아투키족에 대한 최후통첩에서 파성퇴가 성벽을 건드리기 전에 항복한다면 부족을 살려주겠다고 말했기 때문이다.²⁰⁾ 따라서 카이사르의 로마-갈리아 전쟁은 기존에 로마가 치른 공성전의 전형적인 전개 과정을 따랐다고 볼 수 있다.

공성기계의 종류나 공성전의 전개과정이 동일하다면 공성기계를 활용하는 방식은 어떠한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는 아바리쿰 전투에서 사용한 공성로와 공성탑의 길이나 크기를 보면 알 수 있다. 카이사르가 건설한 공성로는 너비가 330페스(97.68m), 높이가 80페스(23.68m)이지만 정확한 길이는 알 수 없다. 피라이우스 전투에서 로마군이 성벽에 사다리를 대려고 했던 높이가 19m인 점,²¹⁾ 256-257년 사산조 페르시아가 두라-에우로포스(Dura-Europos)를 장악하기 위해 건설한 공성로가

18) Livius, *Ab Urbe Condita* 36.22-24, 38-39; Polybius, *Historiae* 21.27-28; Appianus, *Bellum Mithridaticum* 30-41; Plutarchos, *Sulla* 12-14.

19) J. Peddie, *The Roman war machine*, 164-165.

20) Caesar, *Bellum Gallicum* 2.32; Cicero, *De Officiis* 1.35.

21) Appianus, *Bellum Mithridaticum* 30-37, 40-41; Plutarchos, *Sulla* 12-14; Velleius Paterculus 2.23.

유적지 발굴을 근거로 볼 때 길이 40m, 높이가 최대 12.5m라는 점²²⁾을 비교해 볼 때 아바리쿰의 공성로가 상당히 높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공성로의 크기 외에 그 위치도 분석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공성전에서 공성로는 적의 성벽과의 거리는 상관없이 단순히 공성기계들을 이동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그래서 릴리바이움 전투나 우티카 전투, 피라이우스 전투처럼 적군이 성 안에서 땅굴을 파고 나와 공성로를 무너뜨리려는 작전이나 헤라클레아 전투처럼 불을 붙인 나뭇가지를 던져 공성로를 불태우려는 작전을 구사할 수 있었다. 또 기원전 147년 카르타고 전투에서 스키피오는 새 주둔지의 위치를 “카르타고에서 멀지 않은 곳”으로 설정하였다고 하였지만 이곳은 카르타고인들이 성벽에서 5스타디움(*stadium* 925m) 떨어진 곳에 자신들의 또 다른 주둔지를 지을 수 있을 정도로 먼 거리였다.²³⁾ 이에 비해 카이사르는 소위 ‘아바리쿰 방식(Avaricum Style)’²⁴⁾, 즉 ‘적의 성벽에 거의 닿을 정도로’ 공성로를 건설하였다. 이 공성로를 활용하여 공성탑과 보호용 이동로를 끌어올려 적의 성벽에서 최대한 근접하여 공격할 수 있었다.²⁵⁾

카이사르가 적의 성벽에 가깝게 공성기계들을 포진시키려는 이유는 아바리쿰의 성벽의 특징을 고려한 것이었다. 아바리쿰은 전형적인 갈리아 방식으로 축성되었는데, 돌과 목재를 번갈아 섞은 층을 만들고, 그 틈을 잡석으로 채웠다. 이렇게 되면 돌로 된 부분은 불을 막아주고, 목재로 된 부분은 파성되는 공격을

22) J. P. Oleson, ed., *The Oxford handbook of engineering and technology in the classical world*, 704.

23) Appianus, *Bellum Punicum* 114.

24) G. Davies, *Roman siege works*, Stroud: Tempus, 2006, 99-104; J. P. Oleson, ed., *The Oxford handbook of engineering and technology in the classical world*, 703-704.

25) Caesar, *Bellum Gallicum* 2.30, 7.24-27.

흡수할 수 있었다. 게다가 길이가 40페스(11.84m)인 목재로 안쪽을 보강함으로써 성벽이 하나의 큰 덩어리로 되어 쉽게 부서지거나 허물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단단한 성벽으로 보호받는 아바리쿰의 성벽에 큰 타격을 입히기 위해서는 공성기계를 최대한 가까이까지 접근시킬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카이사르도 로마-갈리아 전쟁 초창기인 기원전 57년에는 적의 성벽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공성탑을 배치하였다.²⁶⁾ 하지만 전쟁이 지속되면서 갈리아족의 축성 방법을 파악하게 되었고, 이는 공성기계의 설치 방식을 바꾸는 형태로 나타났다.

‘아바리쿰 방식’은 옥셀로두눔 전투에서도 그대로 실행되었다. 60페스(17.76m) 높이의 공성로 위에 설치한 공성탑을 10층(*decem tabulatum*) 높이로 아주 높게 만든 것이다. 이것이 성벽의 높이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당시의 기술로는 최대한 끌어올린 높이였던 것 같다. 왜냐하면 카이사르가 당시의 어떤 기술로도 성벽의 높이만큼 공성탑을 끌어올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10층이 정확히 몇 미터인지는 알 수 없지만 다른 공성전에서 사용한 공성탑보다 높았던 것은 사실이다. 왜냐하면 카르타고 전투에서 로마군은 높이 12페스(3.55m)의 토루를 쌓았고, 그 둘레에 공성탑을 배치했을 때 이때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공성탑의 높이가 4층이어서 적이 성안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다 보일 정도라고 하였기 때문이다. 또 361년 아퀼레이아(Aquileia) 전투에서 로마군이 사용한 공성탑의 높이도 2층에 불과했다.²⁷⁾

카이사르가 아바리쿰이나 옥셀로두눔에서 공성로, 공성탑, 포

26) Caesar, *Bellum Gallicum* 7.23; J. Levithan, *Roman Siege Warfare*, Michigan: The University Michigan Press, 2013, 205; H. Skaarup, *Siegecraft: No Fortress Impregnable*, Indiana: iUniverse, Inc. 2003, 38-40; J. Peddie, *The Roman war machine*, 156-161.

27) Appianus, *Bellum Punicum* 119; Ammianus, *Res Gestae* 19.8, 21.11-12, 24.10; W. Gurstelle, *The Art of the Catapult*, 12.

공격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 또 다른 이유는 로마군의 공격에 대항한 갈리아족의 반응에서 찾을 수 있다. 노비오두눔 전투에서 공성탑이 설치되자 갈리아군은 “그때까지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거대한 공성기계와 로마군의 빠른 작업 속도에 놀라 협상하였다. 아투아투키족과의 전투에서 로마군이 보호용 이동로를 이용하여 공성로를 쌓고, 멀리 떨어진 곳에 공성탑을 설치하자 갈리아족은 비웃었다. 멀리 떨어진 곳에 그런 거대한 장비를 설치하는 것도 웃기고, 작은 체구의 로마군이 그렇게 무거운 탑을 성벽으로 옮길 수 있겠느냐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갈리아족은 로마군이 그렇게 높은 장비를 그렇게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것을 보자 강화를 제의했다. 이처럼 갈리아족은 로마군의 공성 장비와 빠른 작업 속도에 놀랐다.²⁸⁾

로마군의 공격에 대해 갈리아족의 대응은 초창기 방패로 머리를 가리고 접근하면서 돌을 던지거나 땅굴을 파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갈리아 지역에 광산이 많아 땅굴을 파는 데는 유능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신들과 다른 공성전을 펼치는 로마군에 놀라던 갈리아족은 시간이 지나면서 돌과 땅굴에 의존하는 것 외에 로마군 방식에 대응하기 시작했다.

사료에 갈리아족이 “아군의 전투 방식에 따라”, “아군의 포로들이 가르쳐 준대로”, “남의 것을 모방”한다는²⁹⁾ 표현이 눈에 띈다. 이는 갈리아족의 전술적 모방 가능성을 추측케 한다. 왜냐하면 적과 전쟁하면서 적의 방식을 배우는 사례들이 종종 있기 때문이다. 공성전과 관련한 로마의 공학기술에 대해 기원전 25년경 비트루비우스는 기계에 관해 글을 쓴 사가들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유용한 사료는 그리스인들이 출판한 것이고, 로마의 것은 거의 없다고 한탄하였다. 그리스의 것을 차용할 수밖에 없는

28) Caesar, *Bellum Gallicum* 2.12, 2.30-31.

29) Caesar, *Bellum Gallicum* 3.23, 5.42, 5.52, 7.22

상황을 기술한 것이다. 디오도루스(Diodorus Siculus) 또한 로마인들은 그리스인에게 공성 기술을 배웠다고 하였다. “항상 스승을 능가하는 학생들”이었던 로마인들은 이제 스승의 도시들에게 명령한다.³⁰⁾ 로마가 그리스로부터 공성기계와 방법을 배웠지만 그 배운 전술로 그리스를 장악했음을 뜻한다. 적의 전술을 모방한 또 다른 사례로 사산조 페르시아를 들 수 있다. 베게티우스는 사산조 페르시아인들이 로마인들의 뛰어난 성곽 건설 능력을 모방하여 해자로 둘러싸인 성벽을 건설할 수 있었다고 말하였다. 또 359년 로마군의 성곽인 아미다(Amidā)를 사산조 페르시아가 공략할 때 비틀림 노포를 사용하였는데, 이 포는 신가라(Singara)에서 로마의 포를 약탈한 것이었다.³¹⁾

로마군의 전투 방식을 모방한 갈리아족은 이제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주둔지를 요새화하였고, 로마군의 보급로를 차단하는 전술을 쓸 줄 알았다. 급기야 기원전 54년 네르비족은 세 시간도 안 되어 3밀레 파수스(*mille passus*=5,000pes 4.44km)의 방벽을 쌓았을 뿐 아니라 로마군 포로들에게 배워 로마군의 공성로의 높이에 맞추어 공성탑과 보호용 이동로를 만들기 시작했다. 물론 갈리아족이 로마군에게서 공성 전술을 익히기는 했지만 자재가 부족하고, 적합한 작업도구가 없어서 부실하기는 했다. 하지만 갈리아족이 로마식 공성 장비를 건설, 제조할 수 있었다는 것은 이제 로마가 기술적 우위나 전술적 독창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을 뜻한다. 로마군이 높은 공성탑을 설치하면 갈리아군은 자신들의 공성탑을 더 높일 수 있을 정도로, 카이사르가 갈리아족이 만들어 놓은 공성탑과 방어용 덮개, 토루를 보고 놀랄 정도로 로마군의 기술적 우위는 사라져가고 있었다.³²⁾

30) Vitruvius, *De Architectura* 7. praefatio 14; Diodorus Siculus, *Bibliotheca Historica* 23.2.5-6.

31) Ammianus, *Res Gestae* 20.11.11; Vegetius, *Epitoma Rei Militaris* 3.10.

32) Caesar, *Bellum Gallicum* 1.12-13, 3.21-22, 5.42, 5.52, 7.22; K.

이처럼 갈리아족의 대응력이 높아져 갔기 때문에 아바리쿰이나 옥셀로두눔의 공성로와 공성탑의 길이나 높이에서 보듯이 카이사르는 전쟁 막바지에 더 정교하고, 보다 더 치밀하게 전투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 카이사르는 갈리아에서 새로운 공성 장비나 독창적인 전술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적의 상황에 대응하면서 현실적, 실용적인 전술을 전개하였던 것이다.

3. 알레시아 포위망의 의미

적의 성곽을 공격하는 직접적인 방법이 여의치 않다면 적의 성곽을 포위하면서 적의 군수품 공급을 차단하고, 고립시켜 장악하는 간접적인 점령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다. 이 전술의 이점은 아군의 피해를 줄이고, 적은 병력으로 적의 공격이나 탈출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포위망 구축은 아군에게 엄청난 강도의 육체적인 노동과 긴 시간을 필요로 하고, 적의 탈출과 공격에 대한 심리적인 긴장감이 상당하다는 단점이 있다.³³⁾ 전투 사례로 게르고비아에서는 너무 높은 지대에 자리 잡고 있어서 접근이 어려워 군량을 확보한 뒤 포위전을 하는 방법을 선택하였다. 벨라우노두눔에서도 도착 후 바로 성곽을 포위하였고, 사흘 뒤 항복 협상을 요청받았다. 73년 마사다를 장악한 실바(Lucius Flavius Silva) 또한 높은 절벽으로 되어 있는 동쪽, 남쪽, 북쪽을 제외하고 경사가 완만한 서쪽 면에 포위

Nossov, *Ancient and medieval siege weapons*, 53-54; J. Levithan, *Roman Siege Warfare*, 130-135.

33) Onesandros, *Strategikos* 40.2-4; S. E. Phang, I. Spence, eds., *Conflict in Ancient Greece and Rome: The Definitive Political, Social, and Military Encyclopedia*, California: ABC-CLIO, 2016, 1213; J. Levithan, *Roman Siege Warfare*, 63-71.

망을 구축하여 점령하였다.³⁴⁾

포위망을 활용하여 적지를 점령한 대표적인 사례는 알레시아 포위전이었다. 알레시아는 가장 높은 지대에 위치하고 있어서 포위전을 하지 않고는 함락하기 어려운 곳이었다. 카이사르의 기록에 따르면, 먼저 15페스(4.44m) 너비의 해자를 두 개 파고, 강에서 물을 끌어와 채웠다. 그 뒤에 로마군이 방어를 위해 6페스(1.776m)의 방벽을 11밀레 파수스(16.28km)에 걸쳐 세웠다. 이 공사가 완성되자 카이사르는 훨씬 바깥쪽의 평평한 지형을 따라 14밀레 파수스(20.72km)의 방벽을 만들었다.³⁵⁾

카이사르는 알레시아 주민들과 면해 있는 쪽에 포위망을 구축하고, 아군을 보호하기 위해 해자와 말뚝 울타리를 설치하였다. 그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로마-갈리아 전쟁 이전의 공성전에서 사용한 장치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는 <표 2>와 같다.

<표 2> 기원전 3-1세기 공성전에서의 건설공사 목록

| 시기 | 전투 명 | 사료 | 공사 종류 |
|--------------|-----------------------|--|---------------------|
| 기원전 262-261년 | 아그리겐툼 (Agrigentum) | Polybius, <i>Historiae</i> 1.17-19; Zonaras, <i>Epitome Historiarum</i> 8.10 | 두 개의 해자 |
| 기원전 254년 | 파노르무스 | Polybius, <i>Historiae</i> 1.39; Zonaras, <i>Epitome Historiarum</i> 8.14 | 해자와 말뚝 울타리 |
| 기원전 250-241년 | 릴리바이움 | Polybius, <i>Historiae</i> 1.41-55; Zonaras, <i>Epitome Historiarum</i> 8.15 | 해자와 말뚝 울타리 |
| 기원전 212-211년 | 카푸아(Capua) | Appianus, <i>Hannibalic</i> 37-43; Livius, <i>Ab Urbe Condita</i> 25-26 | 이중해자와 말뚝 울타리로 이중포위망 |

34) Caesar, *Bellum Gallicum* 2.30-33, 7.11; Josephus, *Bellum Judaicum* 7.276-280.

35) Caesar, *Bellum Gallicum* 7.69-74; Hirtius, *Bellum Gallicum* 8.9; G. Davies, *Roman siege works*, 41-42.

| | | | |
|--------------|-------------------------|---|----------------------|
| 기원전 208년 | 로크리 | Livius, <i>Ab Urbe Condita</i> 27-28 | 작업 가능성 |
| 기원전 207년 | 오론기스(Orongis) | Livius, <i>Ab Urbe Condita</i> 28.3 | 이중해자와 말뚝 올타리 |
| 기원전 199년 | 오레우스(Oreus) | Livius, <i>Ab Urbe Condita</i> 31.17 | 작업 가능성 |
| 기원전 189년 | 암브라키아 | Livius, <i>Ab Urbe Condita</i> 38.4-39.4; Polybius, <i>Historiae</i> 21.27-28 | 두 개의 주둔지에 해자와 말뚝 올타리 |
| 기원전 149-146년 | 카르타고 | Appianus, <i>Bellum Punicum</i> 80-127; Zonaras, <i>Epitome Historiarum</i> 9.26-30 | 이중해자와 말뚝 올타리 |
| 기원전 133년 | 누만티아 | Appianus, <i>Hispanica</i> 90-98; Frontinus <i>Strategemata</i> 2.8, 4.1, 7.27 | 이중해자와 말뚝 올타리로 이중포위망 |
| 기원전 108년 | 탈라 | Sallustius, <i>Bellum Jugurthinum</i> 37-38 | 해자와 말뚝 올타리 |
| 기원전 87-86년 | 아테네(Athens) | Appianus, <i>Bellum Mithridaticum</i> 30-39; Plutarchos, <i>Sulla</i> 12-14 | 해자 |
| 기원전 82년 | 프라이네스테 (Praeneste) | Appianus, <i>Bellum Civile</i> 1.87-94; Plutarchos, <i>Sulla</i> 29-32 | 방벽과 해자 |
| 기원전 75년 | 이사우라 베투스 (Isaura Vetus) | Sallustius, <i>Historiae</i> 2; Frontinus <i>Strategemata</i> 3.7 | 방벽 가능성 |
| 기원전 69년 | 티그라노케르타 | Appianus, <i>Bellum Mithridaticum</i> 84-86; Plutarchos, <i>Lucullus</i> 26-29 | 해자 |
| 기원전 57년 | 아투아투키 | Caesar, <i>Bellum Gallicum</i> 2.30-33 | 말뚝 올타리와 주둔지 |
| 기원전 52년 | 게르고비아 | Caesar, <i>Bellum Gallicum</i> 7.36-53 | 해자와 주둔지 |
| 기원전 52년 | 알레시아 | Caesar, <i>Bellum Gallicum</i> 7.69-89; Dio, 40.39-40 | 이중해자와 말뚝 올타리로 이중포위망 |
| 기원전 51년 | 옥셀로두눔 | Hirtius, <i>Bellum Gallicum</i> 8.33-44 | 말뚝 올타리와 주둔지 |

<표 2>에서 보듯이 해자나 이중해자, 말뚝을 이용하여 울타리를 만드는 것이 포위전의 일반적인 양상이었다. 베게티우스에 따르면, 포위하려는 군대는 적의 발사물의 사정거리를 넘어서 해자를 만들고, 망루, 말뚝과 같은 시설을 지어야 적의 성곽에서 행하는 공격을 막을 수 있는데, 이러한 작업을 ‘방벽(*loricula*)’이라고 한다.³⁶⁾ 이것은 정확히 도시 전체를 완벽하게 포위하는 포위망이라기보다는 주둔지를 연결하여 적의 출입을 차단하는 기능이라고 볼 수 있다. 가령 아그리겐툼에서 로마와 동맹군 10만 명이 적의 주둔지에서 8스타티움(1.48km) 떨어진 곳에 큰 주둔지를 건설하였지만 적의 급습으로 주둔지를 이동시킬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군대를 나누고, 도시 반대편에 두 개의 주둔지를 건설, 참호로 연결하였다. 릴리바이움 또한 해자와 말뚝 울타리로 주둔지를 연결하였다. 카르타고 전투에서도 스키피오는 카르타고시 앞에 주둔지를 설치했다가 밤에는 도시로 철수하기를 반복하면서 만에서 25스타디움(4.63km)에 걸쳐 이중해자와 말뚝 울타리를 쳤다.

기존의 해자와 울타리에 비해 알레시아 포위망의 특이점은 이중삼중의 방어 시설을 갖추었다는 것이다. 카이사르는 방벽을 따라 12페스(3.55m) 높이의 망루를 80페스(23.68m) 간격으로 세웠다. 방어벽 앞에는 적의 공격을 막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였다. 하나는 나무 밀둥과 나무 가지를 잘라 끝을 뾰족하게 하여 5페스(1.48m) 깊이의 구덩이를 파고 박았다. 그 앞에는 ‘V’자형의 구덩이를 3페스(0.888m) 깊이로 파고, 뾰족한 말뚝을 박고, 잔가지와 덩불을 덮어 함정으로 위장하였다. 그 앞에 쇠갈고리가 박혀 있는 통나무들을 묻어 두었다. 과거 이중해자와 울타리를 설치한 전례가 있었지만 해자, V자형 구덩이, 나무 덩불 등과 같은 여러 겹의 방어시설은 기존의 포위전에서 찾아볼 수

36) Vegetius, *Epitoma Rei Militaris* 4.28.

없는 정교한 장치였다.³⁷⁾

알레시아 포위전의 또 다른 특징은 포위망의 수에서 찾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한 개의 포위망을 구축하지만 알레시아에서는 각각 11밀레 파수스와 14밀레 파수스인 2개의 포위망을 설치하였다. 이를 구분하여 전자는 병사들이 지키는 망루가 설치되어 있는 내부 포위망(circumvallation), 후자는 아군 배후에서 원군이 아군을 포위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외부 포위망(contravallation)이라고 한다. 한 마디로 카이사르가 이중포위망(bicircumvallation)을 구축한 것이다.³⁸⁾

이중포위망을 구축한 것이 카이사르가 최초의 사례는 아니다. 가령 카푸아 전투에서 로마의 군사령관들(Q. Fulvius Flaccus, A. Claudius)은 카푸아를 포위하는 방법과 그 바깥의 적을 향한 방법을 세웠다. 포위하고 있는 방벽과 카푸아 사이의 공간은 2스타디움(370m)이었다고 한다.³⁹⁾ 하지만 도시 전체를 둘러싸고 있었는지, 아니면 출입이 용이한 특정 지역에 이중포위망을 구축했는지, 이중포위망의 길이가 어느 정도였는지는 알 수 없다.

누만티아 전투도 이중포위망의 사례이다. 스키피오는 개방된 전쟁으로 사상자를 발생시키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누만티아 주민들을 아사시키는 봉쇄 작전을 구사하였다. 스키피오는 도시 가까이에 두 개의 주둔지를 건설하게 한 후 본격적인 포위망 작업을 지시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이중포위망이었다. 스키피오는 7개의 주둔지를 건설하는 동시에 병사들을 보호하기 위해 해자를 파고 말뚝 울타리를 세우고, 그 뒤에 제2의 해자와 울타리가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 기록에 따르면, 포위망의 울타리 길

37) Y. Le Bohec, *The Imperial Roman Army*, London: Routledge, 2000, 134-140.

38) J. P. Oleson, ed., *The Oxford handbook of engineering and technology in the classical world.*, 703; G. Davies, *Roman siege works*, 63.

39) Appianus, *Hannibalic* 37-38.

이는 50스타디움(9.25km), 너비는 8페스(2.47m), 높이는 10페스(3.1m)였고, 1플레트론(*plethron* 30.8m)마다 망루가 세워져 있었다. 이중포위망의 또 다른 사례는 기원전 41-40년의 페루시아(Perusia) 전투이다. 옥타비아누스(G. Octavianus)는 도시를 둘러싸고 15페스(4.4m)의 해자와 56스타디움(10.4km) 길이의 방벽을 건설하였고, 60페스(17.76m) 간격으로 1,500개의 망루를 세웠다.⁴⁰⁾

누만티아와 페루시아의 사례와 비교할 때 알레시아의 포위망은 두 배 정도 길었다. 물론 길이만 놓고 본다면 알레시아 포위망이 가장 긴 것은 아니었다. 크라수스(M. Licinius Crassus)가 스파르타쿠스(Spartacus)의 군대를 쫓으면서 레기움(Regium) 반도로 갔을 때 그 지협에 방벽을 쌓기 시작하였다. 이때 해자의 깊이가 15페스였고, 그 길이가 300스타디움(55.5km)에 달했다. 알레시아 외부포위망의 두 배가 넘는 길이였다. 하지만 이것은 병사들에게 일거리를 주어 나태하지 않게 하려는 목적과 적의 군수품 공급을 차단하려는 목적에서 건설된 것으로써⁴¹⁾ 공성전에서 구축하는 포위망과는 달랐다. 따라서 포위망으로서 알레시아 포위망의 길이는 상당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중포위망의 길이가 길다는 것을 병력의 규모와 연관 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건설할 수 있는 노동력이 많으면 포위망을 더 크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가령 기원전 254년 파노르무스 전투에서 포위망을 구축할 때 로마군은 6만 명, 카르타고군은 몸값을 지불한 14,000명, 전리품으로 팔린 13,000을 합쳐 총 27,000명이었다. 옥셀로두눔 전투에서 카이사르군은 15,000명의 적군에 비해 4개 군단 이상, 즉 최소한 2만 명 이상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어서 수적인 우위에 있었다. 기원전 49년 트레보

40) Appianus, *Hispanica* 97; *Bellum Civile* 4.32-38.

41) Plutarchos, *Crassus* 10.7-8; Appianus, *Bellum Civile* 1.118-119.

니우스(Gaius Trebonius)의 마실리아(Massilia) 전투에서 두 개의 공성로를 건설하였고, 그 중 하나는 80페스(23.68m)에 달하였다. 이때 트레보니우스는 적군 8,000명에 비해 총 3개 군단, 최소한 15,000명 이상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67년 요타파타(Jotapata) 전투에서 베스파시아누스(Vespasianus)는 기병과 보병 일부를 보내 공성로를 닦도록 했고, 병사들은 4일 만에 좁고 험한 길을 평탄한 대로로 만들었다. 그러나 이 공성로만으로 성벽을 공격하기 쉽지 않자 로마군은 요타파타 성곽의 맞은편에 토루를 쌓았다. 로마군의 토루가 점점 높아지자 유대인도 성벽을 더 높게 쌓아 공격 작전이 쉽지 않았다. 이때 4만 명 정도의 요타파타 병력에 비해 베스파시아누스에게는 6만 명 정도의 병력이 있었다.⁴²⁾ 이들 사례들은 포위하는 측의 병력이 수적 우세를 점하여 토루나 공성로 건설을 적극적으로 한 사례이다.

하지만 포위망 건설은 단순히 병력의 규모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왜냐하면 아그리젠툼 전투, 카르타고 전투, 알레시아 전투는 적의 병력보다 적은 상태에서 포위망을 구축하였기 때문이다. 아그리젠툼에서 로마군은 4만 명 정도이고, 카르타고 군은 5만 명 정도였다. 카르타고 전투에서는 로마군 84,000명이 40만 명이 거주하는 대도시를 포위하였다. 카이사르의 기록에 따르면, 알레시아에 정예 부대가 8만 명, 베르킨게 토릭스를 구하러 온 원군은 보병 25만 명, 기병은 8천 명에 달하였다. 플루타르코스(Plutarchos)는 알레시아에 있는 적군의 수는 총 17만 명이고, 원군은 총 30만 명이라고 하였다. 로마군은 10개 군단으로서 보조군과 합쳐 5만 명 정도였다.⁴³⁾ 이처럼

42) Polybius, *Historiae* 1.39-40; Caesar, *Bellum Gallicum* 7.25; Hirtius, *Bellum Gallicum* 8.33-37; Caesar, *Bellum Civile* 2.8.9; Vitruvius, *De Architectura* 10.16.11; Josephus, *Bellum Judaicum* 3.7; M. Joseph, "Roman Siege Machinery and the Siege of Masada", 2.

43) Livius, *Ab Urbe Condita* 26.4; Diodoros Siculus, *Bibliotheca*

적군에 비해 열세거나 우세거나 상관없이 포위망을 구축하는 것을 볼 때 이중포위망, 혹은 긴 포위망을 구축하는 것은 병력 규모와 직결된다고 볼 수 없다.

알레시아에서 로마군이 정교한 이중포위망 체제를 구축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배경은 베르킨게토릭스와 갈리아 원군의 접촉 차단에 있었다. 알레시아 서쪽 평지에 갈리아 원군이 포진해 있었기 때문에 포위된 알레시아 주민의 탈출을 차단하는 동시에 갈리아 원군이 로마군의 배후를 공격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중포위망과 해자, 구덩이, 말뚝, 덤불로 여러 겹의 방어시설을 구축한 배경에는 또 다른 설명이 필요한 듯하다. 왜냐하면 아그리겐툼 전투에서 로마군이 도시에서의 공격과 배후에서의 공격으로부터 아군을 보호하고, 도시로 유입되는 군수품을 차단하기 위해 남쪽과 서쪽에 두 개의 주둔지를 건설하고, 해자로 두 개의 주둔지를 연결했지만 이중포위망이나 여러 겹의 방어시설을 만들지는 않았기 때문이다.⁴⁴⁾

베게티우스는 훌륭한 군 지휘관이라면 아군의 노출 없이 치밀하게 적을 파괴시키기 위한 전략과 정교한 작전을 사용해야 한다고 기록하였다.⁴⁵⁾ 아군의 노출 없이 적을 파괴하려면 아군을 보호하면서 적의 성향에 맞는 장치가 필요하다. 베게티우스의 말을 참조할 때 알레시아의 정교한 포위망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로마-갈리아 전쟁에서 로마군의 건설 능력에 대한 갈리아족의 반응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Historica 23.8; Polybius, *Historiae* 1.17-19; Zonares, *Epitome Historiarum* 8.10; Caesar, *Bellum Gallicum* 7.68-90; Plutarchos, *Caesar* 27.2-5; L. Keppie, *The Making of the Roman Army from Republic to Empire*, 80-101.

44) Polybius, *Historiae* 1.17-19; Diodoros Siculus, *Bibliotheca Historica* 23.9; Zonaras, *Epitome Historiarum* 8.10.

45) Vegetius, *Epitoma Rei Militaris* 3.8.

로마-갈리아 전쟁 초창기인 기원전 58년 카이사르가 헬베티족의 남은 군대를 추격하려고 아라르(Arar) 강에 단 하루 만에 다리를 건설하여 도하였다. 헬베티족은 자신들이 20일 걸려 건넌 강에 로마군이 하루 만에 갑자기 나타나자 당황하였다. 아퀴타니족(Aquitani)은 자국에 채석장이 있어서 땅굴을 파는데 능했지만 땅굴 공격이 무위로 돌아가자 당황하여 항복하였다. 기원전 56년 보카테스족(Vocates)과 타루사테스족(Tarusates)은 자신들의 요새화된 도시를 로마군이 단 며칠 만에 함락하자 놀라 평화사절단을 파견하였다.⁴⁶⁾ 이러한 사례들은 로마-갈리아 전쟁 초기 갈리아족이 땅굴 공사에는 능했지만 지상 작전에서 도하나 포위망 구축에는 취약했음을 보여준다. 이는 로마군이 당시 정교한 포위망을 건설하지 않아도 갈리아족을 포위전으로 충분히 공략할 수 있는 기술적 우위에 있었음을 반영한다.

갈리아족은 처음의 당황스러움에서 차츰 다른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다. 기원전 54년 네르비이족이 10페스(2.96m) 높이의 방벽과 15페스(4.44m) 너비의 해자로 키케로(Quintus Cicero)의 겨울 주둔지를 포위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갈리아족이 로마의 군사령관이었던 세르토리우스(Quintus Sertorius) 휘하에서 복무하여 노련하였던 군인들을 자신들의 지휘관으로 영입하여 로마군의 전투 방식을 배웠기 때문이다. 또 지난 몇 년 동안 로마군과 싸우면서 로마군의 건설 방법을 눈여겨보았고, 포로로 잡은 로마군 병사들에게 캐물어 배워서 익혔던 것이다. 물론 건설 도구들이 변변치 않아 맨손으로 땅을 파고, 흙을 옷에 담아 퍼 나를 정도로 속도와 정교함은 떨어졌지만 이런 포위망을 구축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카이사르를 놀라게 하였다.⁴⁷⁾

46) Caesar, *Bellum Gallicum* 1.12-13, 3.21-23.

47) Caesar, *Bellum Gallicum* 3.23, 5.42-52.

갈리아족은 전쟁을 하면서 로마군의 해자, 망루, 주둔지, 포위망과 같은 토목건설 기술을 경험하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로마군의 기술을 습득하였던 것이다. 카이사르는 갈리아족이 자체적으로 재주를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남의 것을 보고 그대로 모방하고, 그렇게 배운 것을 응용하기까지 하는 재능을 가졌다고 기록하였다.⁴⁸⁾ 카이사르의 기록처럼 갈리아족은 로마군의 기술을 습득하였고, 이를 실제로 응용하여 로마군을 도리어 포위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의 막바지인 알레시아 전투에서는 단일의 포위망이나 간단한 방어 시설로 포위할 수 없었던 것이다. 로마군의 포위전을 파악했기 때문에 좀 더 정교한 포위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알레시아 전투는 카이사르가 기존에 없는 포위망을 구축한 것이 아니라 적과 대응하면서 기존에 비해 좀 더 정교하고, 더 치밀한 포위망을 구축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새로운 전술을 창안한 것이 아니라 기존 전술의 활용성을 높인 것이라 볼 수 있다.

베게티우스는 “적은 수의 로마군이 다수의 갈리아족을 어찌 대항할 수 있었겠는가?”하면서 그 배경에는 병력 규모나 단순한 용기가 아니라 기술과 지속적인 훈련이 있었다고 하였다. “화려한 무기는 적을 공포로 몰아넣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다”는 그의 말도 무기 제조 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⁴⁹⁾ 공성전에서 공성기계는 처음에 갈리아족을 당황시켜 항복을 이끌어냈지만 전투가 지속되면서 로마군의 기계와 전술에 익숙해진 갈리아족이 격렬히 대응하면서 전투는 쉽지 않았다. 로마식의 해자, 망루, 포위망을 구축할 줄 아는 갈리아족을 상대하기 위해 카이사르는 공성기계와 포위망을 더 정교하고, 더 치밀하게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밖에 없었다. 군지휘관으로서 카이사르의 장점

48) Caesar, *Bellum Gallicum* 7.22.

49) Vegetius, *Epitoma Rei Militaris* 1.1, 2.14.

은 새로운 무기나 전술을 창안하는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상황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면서 무기나 전술의 적합성을 높였다는 데 있다.

4. 맺음말

카이사르가 로마-갈리아 전쟁에서 치룬 공성전 중에서 공성기계를 동원한 대표적인 전투는 아바리쿰 전투와 옥셀로두눔 전투이고, 포위망을 구축한 전투는 알레시아 전투이다. 아바리쿰과 옥셀로두눔에서 카이사르는 보호용 이동로로 병사들을 이동시켜 공성로를 건설하게 한 후 공성탑, 파성퇴, 포를 장착하여 적의 성벽을 넘거나 파괴하는 일반적인 전술을 구사하였다. 이전의 전술과 다른 점은 공성로와 공성탑을 최대한 적의 성벽 가까이, 성벽의 높이까지 장착하는 것이었다. 그 이유는 갈리아의 성벽이 돌과 목재로 겹겹이 채워져 불이나 파성퇴의 공격에 잘 견뎠기 때문에 최대한 가까이 붙여야 큰 타격을 입힐 수 있었다. 또 갈리아족이 전쟁 초창기에는 로마군의 공성 방식에 생소하여 당황하였으나 전쟁이 진행되면서 로마군의 방식을 모방하여 로마식으로 대응했기 때문이다. 이제 로마가 기술적 우위나 전술적 독창성을 유지할 수 없었기 때문에 최대한 정교하고, 최대한 치밀하게 전투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알레시아 전투에서 카이사르는 해자와 말뚝으로 울타리를 치는 기존과 유사한 포위망 전술을 구사하였다. 다만 해자, V자형 구덩이, 말뚝, 덩불 등으로 더 정교하게 적의 출입을 차단하였다는 차이점이 있다. 게다가 알레시아 주민을 감시하는 내부 포위망과 배후에서 원군의 공격 가능성을 대비하는 외부 포위망으로 된 이중포위망을 구축하였다. 이 또한 기존에 로마군이 사용했

던 장치였다. 다만 그 길이를 더 길게 만들어 포위하고 있는 적군의 출입과 원군의 지원 가능성을 철저히 차단하였다는 차이점이 있다. 이러한 정교한 포위망을 구축한 이유는 병력면에서 원군이 출현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고, 또 갈리아족의 기술이 향상되었기 때문이다. 갈리아족이 로마군의 방식을 모방하고, 포로로부터 로마식의 해자, 망루, 주둔지, 포위망을 구축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다. 로마군의 전술을 파악하게 된 갈리아족에 대항하기 위해 카이사르는 갈수록 더 정교한 체계를 구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를 볼 때 카이사르가 새로운 공성기계를 개발하거나 새로운 공성 전술을 창안한 것은 아니지만 기존의 공성기계와 공성 전술을 현지에 맞게, 적의 대응에 맞게 개선하여 전투력을 향상시켰다고 할 수 있다. 전술의 실용적 측면을 더 높였던 것이다.

로마가 그리스로부터 공성기계와 전술을 배웠듯이 갈리아와 사산조 페르시아는 로마와 긴 전쟁을 하면서 공성 전술을 배웠다. 하지만 이것은 갈리아와 사산조 페르시아에게만 일방적으로 이득이 있는 것은 아니었다. 로마 또한 기술적, 전술적으로 발전하였다. 갈리아족이 처음에는 당혹감으로 항복하다가 차츰 로마의 공성 전술에 익숙하고 모방하면서 대응력을 향상시키자 로마 역시 공성기계의 정확도를 위해 높은 공성로와 공성탑을 장착하고, 더 치밀한 포위망을 구축해 나갔기 때문이다. 따라서 로마-갈리아 전쟁에서 공성전은 로마와 갈리아 양군의 기술적, 전술적 발전의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원고투고일: 2019. 3. 22, 심사수정일: 2019. 4. 25, 게재확정일: 2019. 5. 7)

주제어 : 공성전, 공성로, 공성기계, 해자와 망루, 이중포위망, 전술적 모방

<참고 문헌>

1차 사료

- Ammianus, *Res Gestae*.
Appianus, *Bellum Civile*.
Appianus, *Hispanica*.
Caesar, *Bellum Gallicum*.
Diodorus Siculus, *Bibliotheca Historica*.
Josephus, *Bellum Judaicum*.
Livius, *Ab Urbe Condita*.
Polybius, *Historiae*.
Plutarchos, *Caesar*.
Vegetius, *Epitoma Rei Militaris*.
Vitruvius, *De Architectura*.
Zonaras, *Epitome Historiarum*.
Zosimus, *Historia Nova*.

2차 사료

- Campbell, D. B., "Teach Yourself How to Be a General," *Journal of Roman Studies* 77, 1987, 13-29.
- , *Greek and Roman Artillery 399 BC-AD 363*, Oxford: Osprey Publishing, 2003.
- , *Siege Warfare in the Roman World: 146 BC-AD 378*, Oxford: Osprey Publishing, 2005.
- Davies, G., *Roman siege works*, Stroud: Tempus, 2006.
- Forge, J., *Designed to Kill: The Case Against Weapons Research*, Switzerland: Springer Nature, 2012.
- Goldsworthy, A., *Roman Warfare*, London: Cassell, 2000.
- Gurstelle, W., *The Art of the Catapult: Build Greek Ballistae, Roman Onagers, English Trebuchets, and More Ancient Artillery*, Chicago: Chicago Review Press, 2004.

- Joseph, M., “Roman Siege Machinery and the Siege of Masada”,
2012 AHS Capstone Projects, 2012, 1–14.
- Keppie, L., *The Making of the Roman Army from Republic to Empire*, Oklahoma: University of Oklahoma Press, 1998.
- Le Bohec, Y., *The Imperial Roman Army*, London: Routledge, 2000.
- Levithan, J., *Roman Siege Warfare*, Michigan: The University Michigan Press, 2013.
- Nossov, K., *Ancient and medieval siege weapons: a fully illustrated guide to siege weapons and tactics*, Connecticut: The Lyons Press, 2005.
- Oleson, J. P., ed., *The Oxford handbook of engineering and technology in the classical worl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0.
- Peddie, J., *The Roman war machine*, Washington: Sutton, 2004.
- Phang, S. E. & Spence, I., eds., *Conflict in Ancient Greece and Rome: The Definitive Political, Social, and Military Encyclopedia*, California: ABC-CLIO, 2016.
- Roth, J. P., *The Logistics of the Roman Army at War*, New York: Brill Academic, 2012.
- Skaarup, H., *Siegecraft: No Fortress Impregnable*, Indiana: iUniverse, Inc. 2003.
- Tsamakda, V., *A Companion to Byzantine Illustrated Manuscripts*, Netherlands: Brill Academic Pub., 2017.
- Webster, G., *The Roman Imperial Army of the First and Second Centuries A.D.*, Oklahoma: University of Oklahoma Press, 1998.

<Abstract>

The Implication of the Roman Siege Warfare from the Tactical Point of View in the Gallic Wars

Bae, Eun-suk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grasp the historical meaning of tactics by analyzing the cases of Caesar's siege in the Gallic Wars. In the case of the Battle of Avaricum and Uxcellodunum, Caesar had carried out a general operation of moving soldiers on a protective transport route, and destroying enemy walls by mounting a siege tower, a battering ram, and a ballista. The uniqueness of Caesar's tactic was to mount the embankment and siege tower as close as possible to the enemy's wall. The reason is that the walls of Gaul were filled with rocks and timbers and they were able to withstand fire or wave attacks. Another reason is that the Gallic tribes were embarrassed by the unfamiliarity of the siege of the Roman army in the early stages of the war, but as the war proceeded, they responded in Roman style by imitating the Roman way.

In the battle of Alesia, Caesar used the past siege tactics of fencing with moats and piles. He blocked the enemy's entry with a device like a moat, a V-shaped pit, and a pile. In addition, Caesar had built up a circumvallation that monitors Alesia residents and a contravallation that blocks the possibility of an attack behind. The so-called 'bicircumvallation' was constructed. This was also a device that the Roman army had used before. However, it made the length longer and blocked the possibility of external and internal attacks. This sophisticated

encirclement was built because of the possibility of the emergence of the armed forces, and because of the improved tactical capacity of the Gallic tribes.

In the case of the siege of the Gallic Wars, Caesar did not invent new siege machines or develop new siege warfare tactics. However, he improved the existing siege machine and siege warfare tactics to suit the enemy situation, thereby improving the combat power of the Roman army. He had increased the practical aspect of tactics. Therefore, the Gallic Wars could be seen as an opportunity to develop siege tactics in both Rome and Gallia.

Key words : Siege warfare, embankment, siege machines, ditch and rampart, bicircumvallation, tactical imitation